

지역 **메아리**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발레 공연

국립발레단(단장 강수진)의 대 명작인 '호두까기 인형'으로 오는 14일 오후 7시에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환상적인 춤과 해설이 있는 발레로 화려하고 웅장한 무대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동화 '호두까기 인형'의 주요 장면을 모아 해설과 함께 재구성한 공연으로 동화 원작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전개와 할리퀸, 콜롬빈, 악마, 쥐, 인형 등 다양한 캐릭터, 아름다운 안무와 환상적인 무대연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공연으로 재구성했다.

한편, 국립발레단(단장 강수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이며 1962년 창단된 최초의 직업발레단으로 국내 최고의 무용수들과 다양한 레퍼토리로 발레계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창단 후 짧은 시간 안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며 지난 반세기 기량의 업적을 현재에 되새기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풍산면 사회복지협, 경로위안 잔치

순창군 풍산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지난 9일 풍산면사무소 대강당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200여명을 초청해 어르신들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과와 식사를 대접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날 경로위안 잔치에는 황숙주 순창군수, 김종섭 군의회 의장, 최영일 도의원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많은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참여하여 뜻깊은 행사를 축하했다.

한편 본 행사에 앞서 풍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개그맨 이용식 씨를 초빙해 '웃으며 살자'라는 주제의 교양강좌를 열었고, 특별공연으로 난타, 풍물놀이, 노래공연 등을 준비해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다. /순창=이영원 기자

원주인재육성재단, 개(關)꿈 콘서트

원주군인재육성재단(이사장 박성일)이 청소년들의 꿈을 이야기하는 '개(關)꿈 콘서트'를 성황리에 열었다.

지난 10일 원주군청 문화회관에서 열린 '원주군과 함께하는 개꿈콘서트'에는 지역 청소년 500여명이 참석했다.

개꿈콘서트는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고집을 이야기하고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다.

원주군은 올해부터 원주, 삼광 등 관내 7개 기관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콘서트를 진행했고, 9월에는 포레연사 오디션을 통해 자신을 꿈과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는 5명의 학생을 발굴하기도 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국가예산 확보 '광폭 행보'

박성일 완주군수, 안호영 의원과 김밀 공조... 소하천 정비사업 등 건의

박성일 완주군수가 국회 예산심의를 발맞춰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추진사업인 농식품통합관리 지원센터 등 미반영 사업의 추가 증액을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박성일 군수는 고재욱 부군수를 비롯해 관련 사업 부서장 책임하에 지역 국회의원의원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들어갔다.

또 국회 상주반을 편성·운영해 지난 3일 국토교통위원회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상임위 및 예결위 단계에서 국가예산 확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과 접촉을 강화하고 심의동향을 파악, 삭감심사, 예산증액 등 예산확보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예결위위원 지역구 안호영의원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세균 국회의장 및 각 상임위의 예결위 위원들을 만나 농식품통합관리 지원센터(40억) 및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184억), 소하천 정비사업 등 미 반영된

군 중점추진사업 반영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전북 및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접촉을 강화해 삭감방지와 추가 증액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올해 상반기부터 항우 공무원, 정치권 등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통해 중점추진 국가예산사업 82건 707억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올해 2,648억 확보에 이어 내년도에는 국비 3,000억(도비포함) 시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쌀밥1번지 김제' 알리기 구슬땀

김제농업기계박람회서 관광 홍보관 운영

농기계분야의 현재와 농업발전의 미래를 제시할 '2017 김제농업기계박람회'가 지난 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3일간 전북 김제시 벽골제(사적 111호) 일원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김제시(시장 이건설)가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며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쌀밥1번지 김제' 알리기 구슬땀을 흘렸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전북도, 김제시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192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총 전시 규모 2만15,620㎡에서 390여종의 우수 농기계들이 전시되어 농업인과 참가업체 간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특히, 김제시 홍보관에서는 관광지도와 리플릿, 기념품 등을 방문객들에게 나눠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행사기간 동안 김제시 문화관광해설사와 외국어 통역 안내원이 함께 참여해 해외바이어 및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2017 김제농업기계박람회'가 지난 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3일간 전북 김제시 벽골제 일원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김제시가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며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쌀밥1번지 김제' 알리기 구슬땀을 흘렸다

형 관광안내해설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또한 벽골제, 이리랑 문화마을, 금산사 등 관내 유명 관광지 외에도 '2017년 전북방문의 해'와 '전북투어패스' 홍보에도 매진했다.

문화홍보축제실장(실장 양운영)은 "이번 박람회는 농업기계의 아재와

오늘 그리고 향후 우리 농업발전의 미래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김제시가 첨단 농기계화를 통하여 일류 농업도시로 앞서감에 따라 관광브랜드 가치 역시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지역자활센터, 기초역량강화과정 교육 진행

김제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복례)는 지난 10일 길로튼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한국자활연수원과 연계하여 자활사업 참여주민 127명을 대상으로 기초역량강화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와 기초능력 배양을 위해 한국자활연수원의 현장맞춤형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했다.

오전에는 필립경영연구소 변철섭 원장이 '자활상품 홍보전략'을 오후에는 이리E&G 오승주 대표가 '고객발굴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기초역량강화과정 교육을 통해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다양한 자활 성공사례들을 현 사업단에 적용해 보고 이를 경험삼아 자활기업

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 역량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탈수급과 자활·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자활사업 입문과정인 Gateway를 비롯한 새롭세차와 5개의 사업단에 150여명의 참여자를 배치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능력배양 및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삼례북페어 성황리 열려

전시·강연·체험프로그램 등 참가자 이목 끌며

삼례책마을과 삼례문화예술촌의 인지도 확산 및 문화예술도시 '삼례'를 알리기 위한 '2017 삼례북페어'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11일, 12일에 양일에 걸쳐 진행된 삼례북페어는 책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 강연, 체험프로그램 등이 이뤄져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북디자인의 대부인 정병규디자이너의 기획전시에서는 도록, 포스터, 초청장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문화카페에서는 김용택 시인과 함께 시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됐다.

특히 방문객들의 눈을 사로잡은 독립출판 페어는 지역, 소수자와 협업으로 책을 내는 '6699press'와 젊은 서체 디자이너들의 서체를 디자인하는 '낮 인사', 인권 잡지를 출간한 '뒤로' 등 21개 팀이 참여해 젊고 돋보이는 개성을 선보였다.

이밖에도 기획전시 '나의 인생, 나의 애장서전'은 도민 35명이 내 마음의 책을 전시하고, 오픈 북토크에는 여행산문집 베스트셀러

유명한 이병률 작가가 참여해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도내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은 팝디자인 공모전에 농산물과 관련된 아이디어로 서로의 실력을 펼쳤으며, LG전자 디자인연구소 차강희 상무이사는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며 디자인을 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논하기도 했다.

또, 지역주민들은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플라마켓에 참여했고, 책을 주제로 한 체험과 전래놀이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북페어를 통해 세대간, 계층간 문화 공감의 장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은 전라북도 1시간 대표관광지로 선정돼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0억을 지원받아 문화예술과 관광 인프라 구축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뉴 커리어 여성 진로비전스쿨 교육 성료

김제시는 교육부 2017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에 선정, 학습으로 설계하는 중년의 노후인생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뉴라이프 진로비전스쿨 교육시리즈 중 직장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뉴 커리어 여성 진로비전스쿨' 교육이 지난 10일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김제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관내 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추진된 은퇴준비 전문교육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인 50~60 중년 여성세대를 위한 '뉴 커리어 여성 진로비전스쿨' 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로 앞으로의 미래 일자리를 미리 준비하고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은퇴후 시테크, 나이를 거꾸로 먹는 여성의 건강관리, 화려한 인생을 사는 인생5월 등 총 10차시로 알차게 구성하여 은퇴를 준비하는 여성 직장인에게 학습을 통해 잘사는 노후를 준비하고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은 "일주일간



회사에 연가를 내고 강의를 들었지만 내용이 알차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내년에도 이런 교육이 진행된다면 동료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전하며 교육에 참여한 소회를 밝혔다.

조종현 김제시 인재양성과장은 "김제시에서 직장인 여성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는 교육과정인 만큼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생애 단계별로 시민 학습요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사업이 추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학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행정농산물 판매소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략산업과
 063-430-2951